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사상 최대 조합원 모집운동 벌이는 COSATU

남아프리카 최대 노총인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이하 코사투)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대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코사투는 이 작전을 '가을 공세 (autumn offensive)'라고 이름 붙였다. 지난 3월초 코사투는 전국지도부로 구성된 '가을 공세' 담당 팀을 구성하고, 소속 산별노조와 지부(local)가 조직활동가들과 현장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직 노동조합이 침투하지 못한 사업장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지방본부(region)로 하여금 미조직 산업 부문과 작업장에 관한 자료를 토의하고 조합원 확대운동을 위한 세부계획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코사투 사무총장이 조합원 확대운동의 정치적·조직적 책임을 지며, 전국의 각 지방과 지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따로 분담하여 조합원 확대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코사투 위원장인 고모모(Gomomo)는 조직화가 가장 어려운 지방인 와줄루-나탈 주를, 수석부위원장인 셉템버(September)는 동 케이프와 북 케이프주를, 다른 2명의 임원들이 나머지 지방을 맡았다. 그리고 소속 산별노조의 임원들이 지방과 지역을 나눠 코사투 지도부를 지원

한다. 지난 4월 1일 시작된 조합원 모집운동에 대한 반응은 코사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모집운동 개시 이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날마다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입원서를 쓰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가입원서와 관련 서류가 부족하여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비협조와 반발로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선뜻 나



서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50%에 육박하는 문맹들로 인해 가입원서를 쓸 줄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코사부는 더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가들을 조합원 모집운동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사부는 가을 공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제7차 전국총회가 개최되는 2000년까지 매년 4월을 '조합원 확대의

달'로 정했으며, '노동조합은 창! 노동조합은 팽배! 지금 당장 코사부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슬로건 아래 새 조합원 1백만 명 조직을 목표로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수 177만 명으로 1985년 출범 당시의 4배로 성장한 코사부가 오는 2000년 조합원수 3백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세계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당해고에 맞선 호주향운노조(MUA) 투쟁

호주 노조운동의 앞으로 몇 년을 결정할 사태가 4월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호주 부두의 하역작업에는 향운노조

(MUA)에 소속된 노조원만이 고용되어왔는데, 지난 4월 6일 호주의 양대 선박하역회사 가운데 하나인 패트릭사가 자기 회사



에 소속된 노조원 1,400명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호주항운노조와 98년도 단체협상을 벌여온 패트릭사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간다"면서 부두하역 작업장에 만연한 노동자들의 비효율을 없애고 경영자가 노조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개별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러한 패트릭사의 요구는 부두하역 작업은 물론 모든 산업에서 노조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려는 보수당 정부의 지지를 받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은 패트릭사의 1,400명 노조원 전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노동시장의 정부와 사용자 대 노동조합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보수당 정부는 패트릭사의 부당해고 행위를 두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낙후한 노동관행과의 싸움"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친압정활을 동원하여 호주 각지의 패트릭사 하역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해산시켰다. 항운노조는 4월 7일 해고조치가 노사 관계법을 정면으로 거슬러는 것이라면서 패트릭사를 연방법원에 고소했고, 이에 맞서 호주 산업부장관은 "노동조합 진영은 과잉반응하지 말고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사용자를 편들고 나섰다.

한편 호주노총(ACTU)은 이번 사태를 호주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

라고 규정하고 노총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조직했으며, 국제적으로도 항운노조의 국제가맹 조직인 국제운수노련(ITF)과 국제자유노련(ICFTU)이 호주 정부와 사용자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호주 항운노동자들에 대한 세계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했다.

정부와 사용자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노동조합에게 어렵게 진행되던 이번 사태는 4월 23일 호주 연방법원이 패트릭사의 해고조치가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명령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로써 항운노조를 무력화시키려던 호주 정부와 패트릭사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고, 사용자와 정부의 공세 앞에 어려움을 겪던 항운노조를 비롯한 호주 노동조합운동은 숨들릴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승부는 아직 끝난 것 같지 않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이듯, 아직 노동운동 진영은 유연화와 세계화로 대표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돌파할만한 이론과 실천 대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비효율성의 주범이다"는 시장 지상론자들의 주장에 아직까지 "우리는 아니다"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노총이나 호주 항운노조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다. ◆